



주일설교 말씀나눔지

2023. 5. 28

「마가복음 십여섯 번째 말씀」

##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가짜

A Fake Seeking to Satisfy Everyone

마가복음 15장 1-15절

- 
1.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 주니
  2.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3.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4.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5.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6.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 주는 전례가 있더니
  7. 민란을 꾸미고 그 민란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8.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9.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10.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 준 줄 알았더라
  11.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12.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라
  13.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14.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이나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15.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
- 

1. 사도신경에 나온 사람 중 예수님을 제외한 두 사람람이 누구인가요? 그 두 사람람이 사도신경에 나온 뉘앙스는 어떠한가요? 서로 비교하며 묵상해봅시다.

2. 예수님이 유대인들 앞에서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재판을 받을 때 죄목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막14:64).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을 걸고 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죄목은 ‘반역’이었습니다(2절).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면 기소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종교적 문제에서 정치적 문제로 바뀌어 기소를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을 읽어보면서, 어떤 문제와 불의 속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는지 살펴봅시다.

3. 그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10)

4.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정확히 세 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눅 23:3-4, 요19:4, **눅23:22**)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몰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15)

5. ‘만족’에 대해 생각해봅시다(전1:14).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넘치는 만족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존재들을 살펴봅시다. 대개 사기꾼이나 무당, 아니면 과대홍보물의 경우가 그에 해당하겠습니다.

빈센트 펠리티(Vincent Felitti) 박사는 “중독에 걸리는 이유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만족 직전까지만 가게 해주기 때문이다. 만족 직전까지만 가게 해주는 것은 아무리 해도 모자라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뜻을 생각해보면서, 이 땅에서 만족에 대한 건강한 성경적인 정의를 내려봅시다(빌4:11-13).

6. 오늘 말씀 후반부에 100명의 처녀에게 세자의 아내로 삼고자 여러 가지 꽃씨를 나누어 준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왕이 원했던 며느리 상은 무엇이었나요? 왜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만족’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묵상해보고 나에게 적용해봅시다.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  
Central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of Kansas